

KFP F-16 장착용 전자전장비 도입

- 적 전자파 교란하는 방어용 장비 ASPJ 구매계약체결



지금 까지 한·미 정부간 장비 구매방법에 대한 견해차이로 도입이 지연되던 KFP F-16 항공기 장착용 전자전장비(ASPJ) 구매사업이 최근 타결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국방부는 1월 10일 “ASPJ(Airborne Self Protection Jammer)의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KFP의 전력화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비용이 상승돼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美정부 및 업체와의 사업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SPJ는 항공기에 장착하는 전자전 장비로 적의 전자파를 방해 및 교란하는 항공기 자체 방어용 장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ASPJ의 구매방법으로 소프트웨어는 대외 군사판매(FMS) 방법으로, 하드웨어는 상업구매방법으로 체결됐으며 상

업구매업체는 노스롭 및 ITT로 결정됐고 도입 시기는 '99년으로 알려졌다.

ASPJ 구매사업은 그동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FMS방법으로 추진한 우리측과 하드웨어 및 군수지원 소요를 상업으로 추진한 미국측과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 협상이 지연되면서 ASPJ의 조기전력화 등에 차질을 빚어 왔었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美해군 및 ASPJ운영 계획, 시험평가자료, F-16제작업체인 록히드사의 기술자료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ASPJ가 현존 장비중 KFP F-16에 장착 가능한 최적의 전자전 장비로 평가하고 있다.

KFP F-16에 ASPJ가 장착 완료되면 사업초기 공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과학대학원에 무기체계 특화연구센터 개설

국방 부는 군사과학대학원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특화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난 1월 21일 화랑대에 소재한 군사과학대학원에서 국방부 위촉 특화연구센터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군사과학대학원의 「특화 연구센터」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중 ‘체제개념연구’ 분야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군사과학대학원에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군 보유 과학자들에게 무기체계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인력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조기 달성하며, 향후 과학기술 집약형 군발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있다.

이번 조치는 국방과학기술현대화 추진의 일

환으로서, 그동안 민간대학 위주로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왔으나 금번 군 대학에도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운용중인 특화연구센터는 서울대의 자동제어,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자광학, 포항공대의 전자파 특화연구센터이며, '94. 12월에 설치된 바 있다.

이번 특화연구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연구과제는 미래/한국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기술분석 및 성능예측 기법 연구와, 개발대상 무기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핵심기술의 군사적 활용체계 정립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 획득방안 및 대안 등을 연구하며, 그 연구결과를 연구개발 기관에 전파/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사기술혁신(MTR :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중국 잠수함세력 확대와 대만의 대응방안

중국 은 러시아로부터 Kilo급 잠수함 4척을 구입하고 앞으로 10척을 추가 구매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Song급 디젤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국은 90여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잠수함이 보완되면 중국의 수중세력은 현저히 증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동아시아의 잠수함 세력

중국과 일본이 서로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지나해의 조어도(일본에서는 센가쿠 섬이라 부름)에, 1996년 7월, 중국이 2척의 잠수함을 출동시킨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오래전부터 잠수함 세력을 확보하



고 있으며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잠수함을 새로 구입하거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잠수함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은 16척의 디젤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13척은 Harpoon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오래된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2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 태국은 적어도 3척의 중국 Romeo급 잠수함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능이 우수한 네덜란드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 말레이시아는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나 2000년까지는 새로운 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 대만은 현재 Guppy급 디젤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 대만의 위협대응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위협의 성격,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 확보계획 및 대잠전방향에 대해서, 해군사령관 Ku Chung-line 제독을 비롯한 해군 고위장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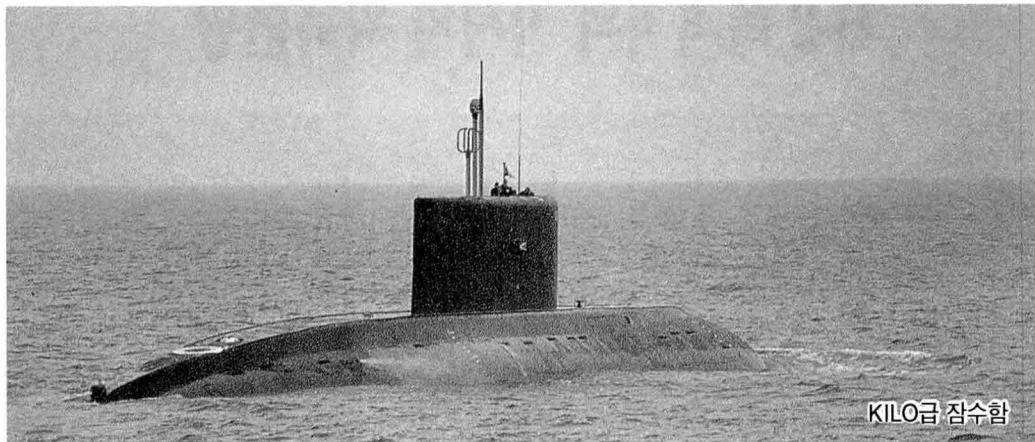
- 중국은 지금까지 잠수함의 양적 팽창을 추구해왔으나 앞으로는 질적인 성능향상을 꾀하고 있다. 구형인 Romeo급 잠수함

을 소음이 낮은 Kilo급 잠수함으로 대체함으로써 획득한 새로운 기술들은 자체 개발중인 잠수함 건조에 활용될 것이다.

- 중국이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수중세력의 현대화를 달성하면, 대만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다.
- 대만이 잠수함 세력을 갖게 되면, 지난 3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위협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미국은 항공모함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군 병력이 대만 해역을 관장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자체방어능력을 원한다.
- 대만이 미국에 대하여 잠수함 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만은 2차 세계대전때 사용하던 Guppy급 2척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면 엄격히 방어용으로만 운용할 것이다.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미국의 태평양함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미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유지하고 미국의 동의없이 어느 곳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 F-16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11년을 기다려

중국이 도입할 러시아의 Kilo급 잠수함 특성

건 조	구 소련에서 1982년 초도함 건조
용 도	공격용 디젤잠수함
톤 수	수중에서 3,000톤
크 기	길이 : 70미터, 폭 : 9.9미터, 흘수 : 6.5미터
추 진	디젤 - 전기 추진 ; 1축, 발전기 2대, 추진전동기 1대
속 도	수상, 12노트 (4,000 bhp) 수중, 16노트 (5,000 bhp)
배 경	- 구 소련은 1950년대에 Whiskey급 236척을 건조한 후에 연안작전에 투입 - 후속 개발한 Romeo급은 20척 만을 건조한 후에 생산 중단 - 다용도 잠수함인 Kilo급 잠수함 출현



KILO급 잠수함

왔으나, 잠수함의 경우에는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잠수함만이 억제력을 갖기 때문에 잠수함을 최우선으로 구입할 것이다. 1차로 재래식잠수함 4척을 구입하고 추가로 6척을 고려할 것이다.

■ 대잠전 능력 강화

- 현재 대만은 대잠전을 해군과 공군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해군은 dipping 소나를 운용하는 헬기를 관장하고 공군은 대잠초계기인 S-2T를 운용하고 있으나 2000년까지는 대잠초계기와 관련 장비를 해군에 이관하여 대잠전은 해군이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9대의 헬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Sikorsky사의 S-70C 11대를 구입하고 P-3C나 동급의 초계기 확보를 위해 美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대만은 1980년대 초반부터 P-3C의 구매를 요청했으나 장비의 민감성 때문에 미국은 이를 거절해 왔다).

■ 대만의 잠수함 확보 전망

지금까지 미국의 대 대만정책은, 대만이 공격무기인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美 해군의 한 당국자는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공격무기이므로, 대만이 진정으로 방어전략에 주력한다면 대잠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국의 항만과 해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의 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수 십년 동안 지켜왔던 디젤잠수함 수출금지 조치를 깨뜨렸다. 1994년 4월 Ingalls 조선소는 이집트에 수출하기 위한 디젤 잠수함 수출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조선소와 로비스트들은, 1979년의 대만관련조례에 의하면 미국은 대만의 자체방어능력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집트와 같은 수출기준이 대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덜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대만의 잠수함 확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Defense News>, 1996. 8. 19~25,

pp.3, 5, 8, 18

<국방기술정보>, 國科硏기술정보센터
1996. 12 pp.17~19